

제20회 세계에이즈의날 행사 리더십, 함께 이끌어가는 세상

≡ 편집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와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문옥륜)은 '제20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행사를 11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백범기념관(용산구 효창동)에서 개최했다. UNAIDS는 '세계 에이즈의 날' 주제와 표어를 각각 'Stop AIDS, Keep the Promise'와 '리더십(Leadership)'으로 정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추어 올해 20회째를 맞는 '세계 에이즈의 날' 주제와 표어를 '리더십(Leadership)'과

'함께 이끌어가는 세상'으로 정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분학계 인사들이 참여의 뜻을 밝히 주세와 부합한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헌신한 유공자 43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주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모두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에이즈 확산방지와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감염인에게 따뜻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는 취지로 사회 각계 주요인사가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문옥륜 회장,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최강원 회장, (재)한국에이즈예방재단 김보임 이사장,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 에이즈 및 보건단체 관련 단체장, 시인 김남조, 한국시인협회장 오세영, 화가 권상호 등이 주요인사로 참석했다. 한편, '제20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고 에이즈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에서는 12월 1일 전후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재)구세군대한본영은 서울 청계천에서 에이즈 관련 상담 캠페인 및 Brass Band 연주회, 에이즈 예방 퀴즈 풀기와 콘돔배포 등으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울터 동대문 누타광장에서는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콘돔캐릭터 홍보, 공연 이벤트, 익명검사 홍보, 패럴 진시, 에이즈예방 OX퀴즈 등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12월 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회장 최강원, www.aids.or.kr)는 오는 12월 1일(토) 제 20회 세계에이즈의날을 맞아

우리사회 에이즈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전 국민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국 11개 도시에서 개최하였다. 서울본부에서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세계에이즈의날' 거리캠페인을 SC제일은행의 후원으로 한국감염인협회(에이즈 감염인 자조모임)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행사에서 에이즈 바로알기 퀴즈 대회, 콘돔 분기 이벤트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에이즈 익명검사 상담소녀'를 함께 운영하였다. 대구경북지회에서는 한일극장 엑스빌라노 특설무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페스티벌형식으로, '산타와 함께하는 재밌는 에이즈 예방' 거리 퍼레이드와 '에이즈 그것이 알고 싶다' 거리강연, 시민들과 함께하는 '에이즈 바로알기 즉석 퀴즈 대회' '콘돔분기 대회' '그릅사운드 공연' '감염인 돕기 불품판매 행사' '20분만에 알 수 있는 에이즈 즉석검사(무료익명)' '아로가 비누만들기 체험' 등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